



여기가 미래과학자거리랍니다



림 현 철

우리 집

대동강기슭에
새로 신 거리
40층 우리 집
창문가에서
나는 지금 대동강을
바라봅니다

머리위에 떠가던
송이구름도

파아란 물결우에
비껴흐르니
우리 집은 구름우에
솟아있는듯

발아래 날아에는
새들 모양도
점처럼 보였다간
사라만지니

나는 지금 하늘우를
날고있는듯

과학자들 제일로
아껴주시는
원수님사랑속에
솟은 우리 집
정말로 하늘우에
선건 아닐가

달이 하는 말

두둥실 솟은 나를
모두 봤으면
밤을 안고왔다고
반겨줬으면

하건만 새 거리
창가마다엔
나를 맞는 얼굴들
보이지 않네

궁궐같은 방들에서

어서 자라고
밤나래 꿈나래
펼치였건만

창가마다 불빛은
꺼질줄 몰라
집집마다 웃음소리
멧을줄 몰라

새집에 든 기쁨이
너무도 커서



누구도 나를 본척
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나는야
날 밝기 전에
밤을 도루 걷어안고
가야 할가봐

대동강에 내린 별



별별 엄마별
별별 아기별
대동강이 좋아서
앞다투어 내렸나

물결우에 비껴간
미래과학자거리
반짝반짝 별장식
하고싶어 내렸지

20층에 반짝반짝

30층에 반짝반짝
자리자리 고르며
꽃별되어 웃는 별

서로서로 손잡고
밤새도록 반짝반짝
대동강에 별무리
펼쳐놓았네

원수님 사랑속에
숨어난 새 거리

꿈게꿈게 수놓으며
별들이 내리니

야, 정말 대동강은
아름다운 별나라
저 하늘은 별이 없는
하늘되겠네

여기가 미래과학자거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사는 거리입니다
푸른 주단 푸른 공원 펼쳐진 거리
하늘과 맞닿은 새 살림집들
승벽으로 솟아난 멋진 새 거리

여기 사는 주인들 축하한다고
꽃다발 들고서 오는 사람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칠새없어
날마다 명절처럼 설레는 거리

여기가 우리 사는 거리입니다
경치도 아름다운 대동강기슭
제일 좋은 자리를 고르고골라
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의 거리

나도야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원수님 기쁨이 될 박사될테야
고운 꿈 창가마다 반짝거리네
아, 여기가 미래과학자거리입니다